

## 육계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육계산업 흐름도 변화해야



조 현 성

(주)하림 사육 BU장

스웨덴 카롤린스 의대 노벨위원회는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mRNA 코로나 백신 개발자인 커리코 키털린 바이오텍 커리코부사장과 미국펜실베이니아대 와이스먼 교수에게 수상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통해 들었다. 세상을 멸망시킬 듯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백신을 상용화하여 인류 건강과 코로나 팬데믹을 종결 시킨 영웅들이다. 대단한 결과를 우리는 지켜보았고 세계는 백신을 통해 안정을 되찾았다. 2021년 11월호에도 양계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기고를 하였었다. 그 당시 업계는 세계적으로 불안했던 코로나19에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산업들이 절망에 가까운 변화들을 경험했었고, 절망속에 있던 우리 산업에 대한 전망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전망을 해 보았었다. 2년간의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지나고 2023년에 같은 주제를 생각해 보았지만 양계 산업은 이제 조금씩 안정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탄탄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 1. 육계 산업의 현황

### 1) 사육 부분

육계산업의 역사는 불모지의 원종계, 종계 산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선호도가 육용 품종으로 자리잡아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낙후된 양계장들도 지속적인 설비투자로 자동화와 규모화를 유도하였고 그에 따라 농가의 수익도 증가하였고 계열사들의 계열화 사업수준이 동반 성장 하였다. 하지만 우리 산업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도전해야 할 문제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특히, HPAI와 같은 가축 전염병 문제, 퇴비처리 문제,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살충제 사용 등이 야기하는 환경 문제, 밀집 사육과 더러운 공간에서 사육되어 고통받는 동물의 복지문제, 농장의 규모화로 설자리가 없어지는 소규모 농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2) 소비시장

소비시장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부분 육과 가공육 시장 성장과 온라인 소비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코로나로 인



한 비접촉 구매력은 배달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패턴을 바꾸는 역할을 하면서 급속하게 소비시장을 이끌고 있다. 또한 건강에 관심있는 현대인들의 소비는 가슴 살 소비를 이끌면서 사육환경도 변화들을 만들고 있다. 닭의 출하 체중이 커지고 있어 원가 경쟁력도 강화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사료가격 폭등으로 원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석유 가격 상승등 에너지 비용상승,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세계적 소비 감소 등 불안한 미래에는 우리산업에도 지속적으로 원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 2. 육계 산업이 나가야 할 방안

우리나라 육계 사업은 계열화의 사업구조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열화사업은 점점 경쟁보다는 질적인 투자와 품질 경쟁에 집중하는 추세이다.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동물에 대한 복지와 최근에는 대체육의 가면을 쓰고 등장한 가짜 고기의 등장도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산업이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은 우리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곧 현실화가 되어 우리 앞에 서있다.

### 1) 축산업에 ESG 경영으로 전환이 필요

ESG경영이란?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개선(GOVERNANCE), 약자로 글로벌 축산 트렌드로 바로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도 무척이나 덥다고 느껴지는 여름을 보냈다. 폭염과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습도가 높아 많은 분들이 더 덥다고 느껴졌다고 생각된다. 사실 우리나라 기온상승도 염려가 된다. 주변에는 동남아에서 보던 과일과 식물을 종종 보게된다. 미래지속 성장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우리 스스로 ESG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일부 언론은 곡물소비가 높은 축산업의 비효율적인 구조와 환경파괴의 주범인양 현혹하며 육류 소비에 대한 문제를 왜곡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국내온실 가스의 1.3%에 불과한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이는 우리 축산 농가의 환경과 약취 등 국민들의 시선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는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축사현대화를 통해 계사 환경을 최적화 하고 주변 환경과 깨끗한 농장을 스스로 만들어 축산 이미지를 개선하고 육종과, 사육 기술을 고도화하여, 사료 요구율 개선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지속 가능한 환경을 확보하고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으로 거듭나야 한다.

## 2) 미래의 축산은 동물복지와 친환경적인 사육으로 전환해야

과거의 사육에서 누가 동물 복지를 생각했겠는가? 최근에도 사람의 복지도 안되어 있는데 동물의 복지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 동물복지는 사육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 아래 동물에 대한 복지의 개념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들 또한 동물복지 제품의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의 반증으로 하림의 동물복지 판매량은 2019년 전년대비 180%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473% 증가하였다. 소비자 축산물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의 사회적 선호 비중을 조사한 결과 축산물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가격 프리미엄의 약 13%에서 27%까지가 소비자들의 사회적 선호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이런 소비증가, 정부의 정책보다 동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진정한 동물복지가 실현되리라 믿는다. 현재 육계 사육에서 가축비, 사료비를 제외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가는 깔짚비일 것이다. 동물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깔짚을 깔아주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싶지만 천정부지로 오른 깔짚비와 분뇨처리비로 인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깔짚 반출시 부속도 검사 등으로 농가의 사육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증가로 축산인들의 사육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규제는 완화되기보다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축산은 분뇨뿐만 아니라 악취, 유해물질 잔류 등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금까지 생산성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동물복지와 친환경적 사육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3) 새로운 세대들의 출현과 미래의 먹거리의 변화에 대응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1인 가구의 비율이 40%가 넘었다고 발표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 식습관에서 밀키

트와 같은 간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과 면역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인식은 더욱 증가하여 닭고기 소비에 대한 채널도 확대되고 다양해 졌다. 특히, 소비의 확대도 SNS를 통한 소통, 먹방, 쿡방등 新문화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소비가 창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통닭 소비의 개념에서 부분육이나 발골 된 닭고기, 특히 가슴살, 정육 등의 고단백, 저지방 식품의 선호가 높아질 것이다. 이는 육계산업의 사육과정에서 출하중량의 변화를 의미한다. 세미의 중량은 조금은 작아지고 발골 후 수율이 좋아야 하므로 하이의 중량은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7kg 이상을 요구하는 소비형태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출하 및 생산 시스템도 변화를 주어야 하며 농가도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여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사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결론

코로나-19의 불편했던 기억들이 악몽처럼 다가오다가도 이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공생하는 친구처럼 추억으로 자리 잡

았고 전 세계는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우리산업의 최고의 난제인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의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으로 우리산업의 걸림돌임에 틀림이 없다. 2023년 10월부터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의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었다. 육계에서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도 계열사책임 방역이라는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런 새로운 시도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 낼지는 미지수이다. 사육농가는 현장에서 실천이 중요할 것이며, 정부도 산업을 통제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안과 새로운 접근을 기대해 본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많은 분들도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다. 새롭게 변해가는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유통 체계, 새로운 소비자 등 많은 변화가 우리들 앞에 다가와 있다.

월간양계의 창간 5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많은분들이 월간양계에서 사육신기술을 익히고 많은 정보를 얻어왔다.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어려움을 같이 동감하고 육계 산업의 발전을 옆에서 지켜보며 월간양계는 함께 성장해 왔다. 세계 양계 산업의 동향과 우리 산업의 현주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과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가금 산업의 조타수 역할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양계**